

세대사회학의 가능성과 한계 - 세대개념의 분석적 구분* -

전상진*

지난 수년 동안 세대현상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다. 이와 같은 발전은 무엇보다 기존의 집단적 정체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조건들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대에 대한 일반적 관심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과학적 탐구는 일종의 저발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무엇보다 개념 자체의 모호성과 다의성에 기인한다. 이 글의 목적은 세대개념에 내재된 다의성과 모호함을 개념의 사용맥락에 따라 분석적 구분을 통해 통제함으로써, 사회변동과 혁신을 파악할 수 있는 세대개념과 세대사회학의 위상을 재정립하는데 있다.

핵심개념: 세대개념, 세대사회학, 만하임, 사회변동, 사회혁신

* 이 글은 2002년 한국사회학회 추계 특별 심포지움 「왜 다시 세대인가? 세대사회학의조망」(2002년 10월 26일)에서 발표한 원고이다. 발표기회를 주신 한국사회학회 회장 양춘 교수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사회정책학과 대우교수

I. 왜 또 다시 『세대들의 문제』인가?

1928년 출간된 카알 만하임(Karl Mannheim)의 『세대들의 문제』(das Problem der Generationen)는 1차 대전 이후 유럽전역에 걸쳐 나타났던 세대간의 대립을 그 역사적 배경으로 한다. 당시 세대간의 대립은 현재의 모든 사회적 참상의 책임이 기성세대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세대와, 이러한 추구를 부당하다고 보는 기성세대의 갈등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단순한 세대간 차이의 수준을 벗어나,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규범 그리고 세계관의 정립을 둘러싼 세대전쟁(Generationenkampf)의 양상을 띠었다.

『세대들의 문제』가 출간 된지 어언 1세기가 지난 오늘날, 그것도 유럽과는 다른 역사적 맥락에 서있는 우리가 다시 『세대들의 문제』를 들추어야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세대들의 차이와 대립이 사회통합을 해치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상황인식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수용에 있어서 소위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로 나타나는 세대간의 격차가 커졌다는 지적에서부터, 청년세대의 새로운 문화코드를 문화혁명의 일단으로 보는 해석방식, 그리고 학교·직장에서 나타나는 세대간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을 세대간의 전선(戰線)의 형성으로 보는 견해, “세대에 따른 의식의 차이와 대립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극적이고 근원적인 문화적 차이와 변동의 과정을 겪고 있다”(김경일, 2002)는 진단에 이르기까지 세대간의 간격과 대립이 극대화된 현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려는 분위기가 세대담론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한다.

세대담론이 각광을 받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정치적, 학문적 상황변화와 관계가 있다.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몰락은 사회과학의 비판적 패러다임을 수세에 몰아넣었고, 이에 따라 이들 패러다임과 직간접으로 연결된 사회구조적 범주인 계급·계층개념의 실천적, 학문적 효용성이 의문시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회의적인 시각은 더 나아가 지금까지 당연시되던 가정, 즉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 형성에서 계급·계층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가정에 대한 의구심으로 발전하였다. 이와 아울러 거의 같은 시기에 현저화된 세계화(globalization)는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국민국가의 영향력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잠식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세대범주는 다른 범주들(예컨대 젠더, 인종 등)과 함께 주목을 받게 된다(Bude, 2000; Carsten, 1999).¹⁾ 다시 말해서 세대범주는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 형성에 대한 계급·계층과 국민국가의 영향력의 약화, 혹은 부분적 소멸을 보완·대체하는 것으로 부상하게 된다.

세대개념과 세대현상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킨 원인으로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상업적인 목적에 따른 소비자의 층화이다. 마케팅 전문가들은 상품의 주된 소비층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 혹은 새로운 상품수요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련의 사람들을 세대개념으로 구획하고, 구분한다(Kohli & Szydluk, 2000). 저널리스트들과 학자들은 기업이 주도하는 특정한 시장수요에 따라 신속히 변모하는 세대상(世代象) 묘사에 부응하기도 한다. 세대꼬리표는 조금이라도 관심을 끌만한 사건이나 변화들과 함께 나타나는 어떤 연령집단의 특성을 지칭하거나, 세대를 묘사하는 개념으로 종종 사용된다. 또한 중요한 사회·정치적 사건 및 사회운동들과 아울러 당시 시대의 특성을 묘사될 수 있는 당대인의 주요 업무·소비형태·생활양식·청소년 하위문화, 기술발전 등의 사항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세대개념이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일각에서는 현 세대를 분석한다는 명분으로 유행에 편승·창조하려는 목적으로 새로운 세대개념을 ‘발명’하는 시도도 한다(Leggewie, 1995; Uhle, 1996).

일반적으로 학자들과 저널리스트들이 주목하는 특성은 부정적인 것이지만, 긍정적인 특성 역시 세대개념과 연결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한·일 월드컵의 감동과 흔적이 채 사라지지 않은 현재, 매스컴에서 각광받고 있는 붉은 악마·W(orld-cup)·R(eds) 세대는 그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대부분의 세대개념 사용방식은 특수한 소집단의 일탈적 가치관이나 행동양식을 전체 연령집단의 성원들이 공유하는 것처럼 성급하게 일반화하거나, 일시적인 유행을 마치 특정 세대의 세대형상, 즉 만하임이 의도하는바 세대의 내적인 통일성의 지표로 과장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위기의 정후로서, 그리고 사회변동의 지표로서의 『세대들의 문제』는 감각적이고 찰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이 문제의 역사·사회적인 근원과

1) 물론 계급·계층개념이 논의된 맥락에서 실질적 타당성을 상실했는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그 과정까지 고려하는 사회학적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세대에 대한 기존의 사회(과)학의 논의에서는 세대에 대한 회의와 의구심이 주류를 이룬다(박재홍, 2001; Ryder, 1965; Corsten, 1999). 이 의구심은 많은 부분 개념 자체의 모호성과 다의성에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세대 개념은 오랜 전부터 경험하고 생각해왔던 다양한 현상들, 예컨대 부모와 자식 및 선조와 후세간의 관계라든지,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사회적 연령과 연령집단의 의미, 그리고 사회 발전 등과 연관되어 사용되고 있다. 회의적 시각의 반대쪽에서는 이 개념이 기존의 사회적 집합범주(예컨대 계급·계층, 국민국가)가 약화·소멸된 상황에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범주로 등장했다고 열광한다(Bude, 1997; Corsten, 1999). 우리는 이 열광을 전적으로 공유하지는 않지만, 이 사회학적 범주가 사회동학과 혁신의 이해에 매우 중요한 사회학의 성과이며 연구도구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만하임은 "세대현상이 역사적 동학의 실현에서 기본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세대범주를 사회동학의 이해를 위해 중요한 사회학의 성과이며 도구로 간주한다(Mannheim, 1964: 565). 이런 인식에 따르면 각 세대들은 그 전 세대와 문화와 지식의 측면에서 서로 구별된다. 예컨대 각 세대는 기술에 대해 서로 확연히 구분되는 의식, 태도, 수용방식을 가지고 있는데(Sackmann & Weymann, 1994),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문화담지자"(Mannheim, 1964)로서 기존의 세대들과 대립하게 된다(Bude, 1995). 과거의 세대는 생물학적인 이유 때문에 일정 시간이 흐르면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게 되고, 새로운 세대는 "과거에 대한 무시", "과거를 문제시하는 성찰", "의식적인 거부"등을 통해 전통을 "망각"하게 된다(Mannheim, 1964: 565). 물론 과거에 축적된 문화적 재화의 계속적 전승은 사회의 존속을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새로운 문화·지식담지자인 새로운 세대는 이를 과거의 관점이 아니라 현재의 관점에서, 즉 현 세대의 관점에서 재해석·재구성한다. 이런 의미에서 세대는 이전 세대와 구별되는 지식과 문화의 담지자로서 사회변동과 혁신을 만들어내는 행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세대이론은 또한 사회적 동학을 연구하는데 유용한 연구전략이기도 하다. "사회적인 변혁들은 많은 경우, 이에 참여한 세대간의 긴장관계 그리고

중요한 행위자·행위집단들의 세대상황(Generationslage)²⁾들을 분석하면 이 과정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근본적인 사회변동은 그 근본에 있어서 세대교체, 즉 새로운 세대성원들이 경제, 정치, 문화적인 중요지위를 계승하는 권력승계로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Burkart & Wolf, 2002: 421). 이런 의미에서 세대개념은 현재 발견되는 세대간의 긴장을 이해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가 겪는 변화양상에 대한 이해와 진단을 위해 꼭 필요한 사회학적 범주이다.

이 글의 목적은 사회변동과 혁신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학적 범주로서의 세대개념의 위상을 재정립하는데 있다. 우리는 이 과제가 무엇보다 세대개념에 내재된 다의성과 모호함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인식에서 이 글은 세대개념의 개념적 교통정리, 즉 이 개념을 각각의 사용맥락, 즉 관찰수준·인식관심·대상영역에 따라 구분한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세대개념의 구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II장-1)), 관찰수준에 따라 세대개념을 가족적(II장-2)), 교육학적(II-3)), 사회적 세대로 구분하여 설명한다(III장). 사회적 세대는 다른 세대개념들과 두 측면에서 구분되는데, 하나는 그것이 근대화의 산물이라는 점, 그리고 이 개념이 관련된 대상영역이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점이다. 사회적 세대와 근대화의 관련에 대해 서술하고(III-1)), 이 개념의 내적인 분화가능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한다. 먼저 만하임의 세대형성과정 대한 분석 도구인 세대상황·세대맥락(Generationszusammenhang)³⁾·세대단위(Generationseinheit)를 설명하고(III-2)), 상이한 사회영역과의 관련에서

2) “Generationslage”의 기존의 번역어 “세대위치” 대신에 여기서는 “세대상황”으로 번역한다(박재홍, 2001). 세대위치는 세대가 전체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가진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Generationslage는 아직 구체적인 세대형상을 가지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잠재적 세대가 대면한 전반적인 사회적 상황과 상태를 의미한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III-2)-(1)을 보라.

3) 박재홍(2001)은 “Generationszusammenhang”을 이의 영어번역 “generation as a actuality”를 따라 “실제세대”로 이를 번역한다. 이 번역이 놓치고 있는 것은 그러나 실제세대가 생성되는 맥락, 혹은 연관(Zusammenhang)이다. 이의 한글 번역을 박재홍의 예를 따라 실제세대로 해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Generationszusammenhang을 실제세대라고 할 때, 세대의 생성맥락 전체를 지칭하는 이 개념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다는 점을 우려하여 여기서는 세대맥락으로 번역한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III-2)-(1)을 보라.

정치·문화·경제적인 사회세대(soziale Generation)를 각각 구분하여 설명(III-3)한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들을 세대개념들의 상호관계에서 요약·정리한다.

II. 관찰수준에 따른 세대개념의 구분

1) 세대개념의 구분의 필요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대개념에 대한 의구심은 많은 경우 그 다의성과 모호성에 기인한다. 상이한 맥락에 근거한 개념들이 한 의미연관에서 사용됨으로써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가족에서 출생서열의 차이(부모세대와 자식세대)를 묘사할 때도, 특별한 역사적 사건이후 나타난 사회적 변화를 설명할 때도(386세대), 청소년집단의 새로운 행동특성과 가치관을 지칭할 때(예를 들어 X세대, 혹은 신세대)도 세대개념을 사용한다. 이런 개념 사용방식은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변화와 연결된 특정 연령집단의 새로운 가치관 및 행동양식을 가족세대의 맥락으로 환원하여 설명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 즉 가족관계에서 나타나는 세대현상을 사회적인 세대맥락에서 고찰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의 어려움이 나타난다. 부모와 자식세대 간의 갈등은 같은 시점에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세대현상을 통해 단지 제한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세대개념의 사용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들이 있었다⁴⁾. 일련의 학자들은 이 개념의 사용범위를 가족과 관련된 것으로 제한하고 다른 사회영역, 특히 거시적인 사회영역에서는 다른 개념(예컨대 코호트 개념)을 사용하자고 제안한다(대표적으로 Ryder, 1965). 이런 '깔끔한' 해결책에 반대하는 연구자들은 세대개념이 다른 경쟁적 개념으로 대체될 수 없는 사회현상에 대한 고유의 기술 및 설명능력들이 있기

4) 이에 대해 전반적인 고찰은 다음을 참조: 박재홍, 2000; Becker, 1989; Fogt, 1982; Jaeger, 1976; Lüscher, 1993; Kohli & Szydlik (ed), 2000).

때문에 이런 해결방식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⁵⁾ 이와 같이 구체적인 해결방식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이들 모두는 세대개념을 사용하는 맥락에 따라 이를 구분할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인정한다(박재홍, 2000; Kohli 1996; Kohli & Szydlik, 2000).

이 문제에 대해 제시된 다양한 해결책들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그림 2-1 참조). 하나는 관찰단위로서의 가족과 전체 사회, 즉 미시-거시의 구분에 따라 세대개념을 구분하거나 다른 개념으로 이를 대체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회영역 및 체계에 따라 개념을 맥락화하는 것이다. 전자에서는 주로 가족에서의 구체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미시수준(특히 가족)과 사회 집합체와 사회체계간의 상호관계가 중심이 되는 거시수준에서 세대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룬다. Bengston(1993), Leisering(1992), Lüscher(1993), Rosenmeyr(2000)등의 연구들이 이에 속한다. 다른 일군의 연구자들은 서로 구분되는 특성을 가진 정치·경제·문화적 사회영역의 특성에 따라 세대개념을 맥락화할 것을 주장한다(Kohli, 1996; Kohli & Szydlik, 2000).

<표 2-1 : 가족세대와 사회적 세대>

세대개념	해당 인간(집단)	수준
가족적 세대	자식-부모	미시
	자식-부모-조부모	
사회적 세대	코호트(하위집단)	거시
- 정치적 세대		
- 문화적 세대		
- 경제적 세대		

출전 : Szydlik 2000: 27

5) 90년대 들어서 일련의 유럽 사회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대변한다. 이 중에서 '언어적 접근제한성'을 가지지 않은, 혹은 덜 가지는 영어로 소개된 논문들만을 추리면 네덜란드의 Becker(1990), 독일의 Corsten(1999), Kohli(1996), 그리고 영국의 Pilcher(1994)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이런 체계화된 틀을 엄밀하게 고려하지 않는 경우라도, 세대현상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자신의 연구대상의 독특성을 인식하고 있다. 예컨대 몇몇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대상의 독특성을 정치적 세대(Fogt, 1982; Bude, 2000), 문화적·기술적 세대(Bude, 1995; Sackmann & Weymann, 1994), 복지국가적·경제적 세대(Leisering, 2000) 등으로 명명한다. 물론 이 연구들은 사회적 세대라는 모듬개념(Sammelbegriff)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이 개념은 그러나 매우 유용한데, 왜냐하면 이것이 거시적인 수준의 사회개념을 지칭함으로써 미시적인 수준의 가족에 대한 대립항을 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Kohli & Szydlik 2000). 이를 통해서 우리는 미시적인 가족의 세대관계와 거시적인 사회적 수준의 그것을 비교·구분할 수 있으며, 또한 이 거시적인 수준에서의 다양한 사회영역의 특수성을 맥락화할 수 있는 개념들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위의 구분은 그러나 사회학적 개념으로서의 세대가 가지는 기술적, 설명적 잠재력을 완전히 소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다시 말해서 세대현상은 위에서 설명한 가족적, 사회적 차원 이외에 다른 연관에서도 나타난다. Liebau(1997)에 따르면 교육학적-인류학적 연관에서 나타나는 세대현상도 사회(과)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경험적, 이론적 지위를 갖는다(Höpfinger 1999도 참조). Liebau(1997)의 구분 방식은 그러나 사회영역에 따라 사회적 세대를 보다 세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놓치고 있다.⁶⁾ 우리는 위에서 살펴본 두 가지 세대구분 모델을 하나의 모델로 통합하여 사용한다(본문의 IV장도 참조). 이하에서는 가족적 세대(II-2))와 교육학적 세대(II-3))를 각각 설명하고, 다음 장(III)에서는 사회적 세대개념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2) 가족적 세대

가족관련 세대개념은 가족 내에서의 출생순서의 차이에 따른 범주이며,

6) Liebau(1997)는 사회적 세대를 정치적 세대와 동일시한다.

일상생활이나 가족연구에서 주로 쓰인다.⁷⁾ 가족세대 개념은 상대적으로 명확하고 간단한데(Liebau, 1997: 299), 세대는 곧 혈통계보의 고리, 즉 출생서열(예컨대 자식, 부모, 조부모)을 말한다. 이 세대개념은 가족제도의 역사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의 정의방식은 변화하지 않는다. 즉 가족 형태가 다양하게 되고⁸⁾ 친족관계와 가족내의 관계가 복잡화되어 기존의 가족제도의 형태가 많은 부분 변형되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실, 즉 혈통계보는 명확히 존재하기 때문에 가족적 세대정의 자체는 과거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가족세대 개념과 관련된 흥미로운 논의사항은 그 이론적 내용보다, 그 경험적 내용의 변화 혹은 발전이다. 무엇보다 수명연장에 따라 역사상 처음으로 3세대, 경우에 따라서는 4세대 가족이 일반적인 형태로 등장했다(ibid.). 오늘날 아동들은 과거와 달리 그들이 초기 청년기에 이르는 성장시기까지 조부모와 하나의 가족을 이루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가족관계를 구성한다. 평균적인 자녀수의 축소와 함께 이 변화는 평균적인 생애과정의 새로운 구조화를 가져온다(Kohli, 1986; Mayer, 2000).

가족은 수명의 연장에 따라 세대간의 관계(조부모, 부모, 손자세대), 즉 수직적 관계가 강화되고, 또 다른 한편 자녀수의 축소에 따라 세대내의 수평적 관계는 축소된다. 다시 말해서 형제들의 의미가 사라지거나 왜소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명연장에 따라 세대간의 상호작용이 강화되기 때문에, 가족세대 관계에서 수평적인 측면보다 수직적인 측면이 강화된다. 가족의 수평적 측면의 왜소화와 수직적 측면의 연장과 강화는 경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에 대해서는 축적된 연구들이 많지 않다. 우리는 아직까지 아동이 2개의 혹은 경우에 따라서 3개의 성인세대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또 소위 샌드위치 세대, 즉 부모이면서 동시에 자식세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7) 양자는 물론 다양한 방식으로 연관된다. 예컨대 전체 사회적인 수준에서 나타나는 갈등이 가족 내로, 즉 부모-자식간의 관계로 전이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관해 보다 상세히는 Kohli & Szydlik (2000)과 Rosenthal (2000) 참조.

8) 이혼이나 동거 혹은 독신자의 증가 등을 의미한다.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중적 부모세대, 즉 부모가 된 자식세대와 성인이 된 손자세대와 함께 살고 있는 조부모세대의 삶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 결국 가족적 세대의 연구과제는 변화된 조건하에서 세대상호간의 관계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족적 세대의 상호관계가 발전할 것인지, 즉 조화롭게 세대간 연대가 강화될 것인지, 아니면 세대간 갈등이 첨예화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주제이다. 이런 의미에서 개념적으로 매우 명확한 가족적 세대(관계) 개념은 이론적으로 새로 정의될 필요보다는 오히려 가족제도의 변화에 따라 그 새로운 경험적 내용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3) 교육학적 세대

전통적인 교육에 대한 관념에 따르면, 교육의 과제는 사회의 생존에 필수적인 문화적 전통과 사회적 지식들(규범, 가치, 기술적 지식 등)이 단절되지 않도록 전달하고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Kamper, 1989). 다시 말해서 교육은 사회가 개별 인간의 생존시기에 구애되지 않도록 사회의, 동시에 그 곳에서 사는 인간들의 문화·사회·경제적 연속성을 보장하는 수단이다. 이런 맥락에서 독일의 교육사회학자 유타 에카리우스(Jutta Ecarius)는 인간이 “부족한 존재”(Mängelwesen)라는 인류학적 사실 때문에 세대간 교육의 의무를 가진다고 주장한다(Ecarius, 1998: 47). 이에 따르면 교육의 목적은 연장자 세대가 젊은 세대를 교육하는 것, 즉 이들이 사회의 불완전성을 개선할 수 있고 전통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만드는 것에 있다.

연령서열과 교육적 세대간의 일치성, 즉 연장자는 교육하는 세대이며 연소자는 교육받는 세대임을 전제하는 전통적인 교육학적 세대개념은 앞으로 상술할 우리의 그것, 즉 양자의 일치를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지 않는 것과는 다르다. 전통적 개념이 가족과 학교의 교육학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미시적) 세대관계에 연구관심을 집중하는 이유(Ecarius, 1998: 56)는 바로 연령서열과 세대관계의 일치성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엄밀하게 말해서, 이 전통적 개념은 가족성원과 학교성원의 역할(자식-부모역할과 학생-교사역할)

을 세대관점에서 고찰하는 도구이다. 이에 반해 우리의 교육학적 세대개념은 연령과 세대간의 관계의 일치성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과 학교라는 일차적 집단과 미시적인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서 거시적인 공간에서의 교육관계를 살필 수 있는 가능성을 연다.

우리의 교육학적 세대개념은 교육의 기본적인 관계, 즉 문화와 사회적 지식의 전달자 세대와 전수자 세대의 관계를 지칭한다. 교육은 단지 두 가지 부분적 활동, 즉 전달과 전수의 활동으로 통합되어 있고 그에 상응하여 두 가지 상이한 주체들만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두 가지 세대만이 존재할 수 있다(Sünkel, 1997). 즉 교육학적 세대개념은 행위자가 지식과 문화의 전달과 전수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연관된다.

인간 혹은 집단들이 교육학적 연관에서 어느 세대에 소속되는가의 문제는 과거에는 아주 간단히 해결되었다. 프리드리히 쉐라이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의 유명한 정식인 “도대체 연장자들은 연소자에게 무엇을 원하는가”에서 표현되는 바와 같이 교육적 세대로서의 전달자와 전수자 세대는 연장자와 연소자의 관계와 동일시되었다(Winkler, 1998). 이 관점에 따르면 사회적 발전에 결정적인 지식과 문화의 창조와 전달의 과제를 성인인 연장자세대가 담당하며, 연소자 세대의 의무는 연장자의 도움으로 자격을 갖추으로써 사회의 존속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전통적 관점은 생의 주기, 따라서 연령집단 간의 관계에 대한 고유한 이해에 근거한다(Weymann, 1994). 생의 주기를 정적이고 순환적인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연령집단들은 연령의 많고 적음에 따라 권위적인 위계적 관계를 구성한다. 생의 주기가 정적이고 순환적이라는 것은, 곧 성인들과 노인들의 현재와 과거가 아동과 청소년의 미래와 현재라는 의미이다.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집단의 구성원들이 직면하는, 혹은 후에 직면하게 될 현재와 미래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집단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이런 정적이고 순환적인 생의 주기에 대한 관념은 또한 시대이해와 연관되어 있다. 한 시대가 가고, 다른 시대가 도래하면, 세계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면모를 갖게 된다는 것은 전형적인 근대적 시대인식이다(Lübbe, 1983). 전통적 시대이해에서는 단지 보다 나은, 보다 나쁜 시대만이 존재할 뿐 각 시대들은 서로 질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만약 지식과 문화의 창조와 전달이 오로지 연장자들에 의존하지 않거나 그 의존도가 낮아진다면, 이런 전통적 관점은 더 이상 현실에 적합하지 않게 된다. 현대사회는 불연속성과 구조적인 역사적 변동의 시대이다(Lübbe, 1983).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변혁들은 사실 근대의 전형적인 특성이다. 근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유일한 연속성은 단지 사회의 영속적인 변동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영속적인 변동의 시대에는 전통적인 교육학적 세대관계의 가정, 즉 지식과 문화의 창출과 전달에서 연장자 세대가 연소자 세대에 비해 구조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는 가정은 그 근본부터 도전 받게 된다(Liebau, 1997).

근대적 조건에서 새로운 것과 젊음은 기존의 것 그리고 연로함을 파괴하고 해체할 뿐만 아니라, 이를 무용한 것으로 가치절하 시킨다. 젊은 세대는 매우 중요한 영역들에서 새로운 문화와 지식을 창출하며, 따라서 그 전달자의 지위를 서게 되고 연장자 세대는 전수자의 지위를 점하게 된다. 기술적 능력, 미디어 소비, 생활양식, 문화적 취향 등의 예가 이런 경우에 속한다. 오늘날 학습이 더 이상 아동·청소년기의 과제가 아니며, 장기적인 전생애에 걸친 과제로 간주된다는 사실은 이와 같은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Hurrelmann, 1999). 요컨대 현대 사회에서 연령서열이라는 기준은 교육적 세대의 소속을 결정하는 유일한 것이 아니다.

물론 이런 변화에 대한 과장된 해석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몇몇 아동사회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아동들이 자신의 동년배 집단에서 창출하는 새로운 사회적 지식과 문화가 다른 연령집단의 그것과 동등할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측면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주장도 있다(Corsaro, 1997). 하지만 적어도 젊은 세대가 초등학교에 속해있는 경우에는 전통적 교육학적 세대개념은 상대적으로 큰 문제없이 여전히 유효하다(Liebau, 1997).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적인 교육학적 세대개념은 현대사회에서 여러 제약을 가진다.

마가렛 미드(Margaret Mead)의 작업(1970)은 지금까지 살펴본 현대적 교육세대의 관계를 체계화시킨 최초의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역사적 시대 및 그 전수방법에 따라 세대간의 관계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 전통시대에는 성인의 과거는 다음 세대의 미래였다. 당시에 전통은

단순히 전통이 아니라, 현재이며 동시에 미래를 의미한다. 사회적 발전, 아니 생존의 문제는 곧 과거의 전통을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하는가의 문제였다. 그러나 현대사회, 물론 미드가 글을 쓰던 당시의, 즉 20세기 중반의 사회특성은 전통시대와는 달리 문화적 전수의 문제에 있어서 연령이 차지하던 비중이 소멸되었거나, 혹은 소멸되는 과정에 있다. 이제 아동·청소년과 성인은 문화전수에 있어서 동등한 자격을 갖춘 행위자로 등장하게 된다. 문화전수는 더 이상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단계를 밝기보다는 동시대 내부의 문제가 된다. 문화변동의 자극은 이전 세대가 아닌 현재적 세대인 동년배에게서 오며, 문화적 지향점은 따라서 동시대인에게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연령의 서열과 교육의 서열은 더 이상 일치하지 않으며, 각 연령집단은 각각 고유의 생활세계와 세대의식을 가지게 된다.

미드는 마지막으로 문화전수의 세 번째 가능한 관계를 예측한다. 그에 따르면 미래사회에서는 연령서열과 교육적 세대의 관계가 역전되는 상황, 즉 성인이 아동·청소년에게서 배우게 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 이 상황은 전세계적으로 정보교환이 가능하게 되면서,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하면 지구촌화(globalization)되면서 모든 세대가 이 새로운 세계로의 이주민(immigrant)이 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의 연구의 시대적 배경이던 20세기 중반의 미국의 이주민들의 경험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다른 문화권에서 성장한 성인(이민 1세대)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가졌지만, 이 새로운 조건에서 성장한 그 이후 세대들(1.5세대 혹은 2세대들)은 새로운 세계에 보다 빨리 적응했다. 이러한 사실에 따라 유추해보면 미래에는 이미 과거의 경험에 집착하는 성인보다 이로부터 자유로운 아동·청소년들이 보다 빠른 적응력을 보일 것이며, 이 때문에 연장자 세대는 연소자 세대에게 이 신세계에 적합한 생존방식, 즉 새로운 문화, 사회적 지식을 배워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는 미드가 정리한 세 가지 문화전수의 방식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가능성이 혼합되어 있는 상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변화는 연령위계와 교육적 세대관계의 일치성을 전제하는 전통적 교육학적 세대개념의 제약성을 드러낸다. 이에 반해 여기서 제출한 교육학적 세대개념, 즉 다른 모든 사항 무엇보다 연령에 관계없이 생존에 필요한 사

회적 지식과 문화의 전승·창출관계에서의 위치, 즉 전달자와 전수자의 위치에 따라 세대를 구분하는 새로운 교육적 세대개념은 오늘날 사회의 새로운 조건에 적합한 개념이다.

III. 사회적 세대

사회적 세대는 위에서 설명한 가족적 세대와 교육학적 세대와는 구분되는 몇 가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 가지 차이는 관찰수준의 상이함이다. 교육학적 세대의 특성은 미시-거시 영역 모두에서 확인될 수 있으며 가족 세대는 미시적 영역에 국한됨에 반해, 사회적 세대는 거시 영역에서 사용된다. 또한 앞의 두 세대유형은 역사의 진행에 따라 그 내용과 형태가 변화하였지만 계속 존재했던 반면 사회적 세대는 특정 시기의 역사적 산물, 즉 근대사회의 도래를 통해서 생성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⁹⁾ 사회적 세대는 사회변동, 즉 우리가 근대적 사회라고 칭하는 것이 등장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자, 이를 실현하는 행위자”이기도 하다(Weymann, 1995: 373).

1) 근대화와 사회적 세대

근대화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변화를 포함하는 거시사회학적 개념이다(Zapf, 1994). 사회적 세대의 생성에 있어서 근대화는 세 측면, 즉 도시화와 사회변동의 급속화, 그리고 사회분화에서 영향을 미친다. 물론 이 세 측면은 실제적으로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서 분석적으로만 분리 가능하다. 도시화 과정은 사회적 세대의 생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도시화

9) 이런 의미에서 몇몇 연구자들은 사회적 세대를 역사-사회적 세대로 표현하기도 한다. Liebau(1997), Höpflinger(1999), Rosenmayr(2000). 이에 반해 뤼셔(Lüscher, 1993: 23)는 세대를 역사적 연관과 사회적 연관에서 구분한다. 역사적 연관에서 세대는 역사적 변동을, 사회적 연관에서 그것은 현존하는 사회적 집단을 관찰 가능하게 하는 분석도구이다. 우리는 이러한 구분을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세대와 같은 사회적 범주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는 역사적 변동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구분은 분석의 상이한 단계로서의 구별은 가능하겠지만, 뤼셔가 의도하는 바와는 달리 독립적인 별개의 분석관점과 관심으로 세분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는 도시로 이주한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와 농촌에 남아있는 상대적으로 늙은 세대간의 공간적 분리를 발생시킨다. 이 공간적 분리는 도시인에게 있어서 전통에 의한 행위와 사고의 제약성을, 그리고 전통에 근거한 혁신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킨다(Weymann, 2000: 38). 뒤르카임이 서술한 바와 같이 도시화에 따른 세대간의 공간적 분리는 “서로 연이어 있는 세대간의 지속적인 접촉이 실질적으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대간의 연대는 약해진다. (...) 이 연대가 약화되기 시작한 이후에는 각 세대의 등장과 함께 점점 더 그 약화의 씨앗은 성장한다.”(Durkheim, 1977: 336; Weymann, 2000: 38에서 재인용)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된 양 가족세대는 생활세계(Lebenswelt)의 상이함에 따라 그 차이가 더욱 강화된다. 이를 공동체(Gemeinschaft)와 이의사회(Gesellschaft)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농촌에 남아있는 부모세대는 공동체의 속성을 지닌 생활세계, 즉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동체에 의해 집합적으로 각인된 신념, 관습, 그리고 종교로 구성된 생활세계의 영향력에 있다. 이와 달리 도시로 떠난 자식세대는 도시 성원자격을 (이주에 의해) 개별적으로 성취한다는 특성이 있다(Weymann, 1995: 371). 그리고 도시의 생활세계는 법과 경제라는 사회체계에 의해 지배되며, 이 조건에서 공동체적인 생활세계의 특성은 단지 주변적인 기능만을 수행할 뿐이다. 도시화는 결국 농촌의 부모세대와 도시의 자식세대라는 가족세대의 차이를 생활세계의 차이로 공간화 함으로써 세대현상의 사회적 결합(Vergesellschaftung) 자체를 변형시킨다. 즉 도시화로 인해 부모와 자식세대간의 관계는 사회적인 것으로 변형된다.

근대화 과정에서 사회변동이 급속하고 광범하게 진행되면서 역사적 시간의 간격은 더욱 커진다(Lübbe, 1983). 과거와 현재의 일상적인 경험은 더 이상 미래세계에 대한 어떤 판단의 준거로서 적합하지 않다(ibid.: 55). 근대적 사회에서 역사적 시간의 간격이 커진다는 사실은 연령집단간의 관계를 변화시킨다. 오랜 삶의 경험에 근거한 노인의 자문(諮問) 능력은 이제 더 이상 필요치 않으며, 현재의 세계는 새롭게 교육받은 젊은이들에 의해 선도·운영된다(ibid.: 83). 전통적인 사회적 지식은 공동체적인 생활세계의 경험에 기반을 두는데 반해서, 근대세계에서는 새로운 변화·사회현상·행

위기준에 상응하는 새로운 사회적 지식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된다. 요컨대 사회변동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역사적 시간의 간격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사회적 지식의 시간적 차이에 따라 구분되는 사회적 세대의 생성이 가능하게 된다.

사회적 세대의 생성과 관련된 근대화의 또 다른 측면은 사회분화이다. 사회적 부분영역과 사회적 단위들의 분리·고립·구획화의 과정을 의미하는 사회분화의 결과는 새로운 사회영역과 생활세계의 등장이다. 이런 조건에서 구래의 사회적 지식의 효력과 가치는 감소한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세계는 기존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맥락과 논리를 가지기 때문이다. 사회분화의 중요한 특성인 사회적 조직, 혹은 기능의 제도화는 역사적 시간을 달리하는 집단들을 분리하여 사회적 세대간의 접촉의 기회를 감소시킨다. 이의 가장 특징적인 사례는 교육의 제도화이다. 그 어떤 다른 근대적 제도보다 그 세계적 확산의 속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근대적 학교제도(Meyer & Kamens(eds.), 1992)는 장기간에 걸쳐 비슷한 연령을 가진 아동·청소년들을 외부로부터 일정정도 고립된 공간에 '가두어' 놓는다. 장기간에 걸쳐 외부로부터 고립된 공간에 갇혀 사는 근대사회의 어린이와 젊은이들은 일상적인 생활경험에서 고립됨은 물론, 다른 세대와의 관계를 맺을 가능성 역시 적어진다. 성인들에 의해 생산·유포되는 주류문화와 다른 문화적 코드를 가진 젊은이들의 하부문화(sub-culture) 역시, 근대학교의 확산에 따른 세대격리의 문화적 결과물이다. 젊은 세대가 다른 세대와 상이한 문화적 코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들의 사회화의 지향점이 동년배, 즉 자신의 세대에게 맞추어져 있음을 뜻한다. Ryder(1965: 853f.)가 학교를 세대¹⁰⁾의 생산자라고 주장하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2) 사회적 세대의 개념적 구분

사회적 세대개념은 두 측면에서, 즉 세대형성의 과정(III-2)-(1)과 사회영역(III-2)-(2)에 따라 구분 가능하다. 첫 번째 측면은 만하임의 논의를

10) 물론 라이더는 세대라는 개념 대신에 코호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 의미에 있어서 그의 코호트 개념은 여기서 의미하는 바, 사회적 세대와 동일하다.

준거점으로 삼는다. Kohli & Szydlik(2000)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의 세대개념이 비록 사회적 세대의 하부개념인 정치적 세대의 연관에서 구성된 것이지만, 그의 분석은 형식사회학적인 접근¹¹⁾이기 때문에, 사회적 세대 일반에 대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1) 만하임의 세대개념

만하임이 세대현상에 주목하는 이유는 근대사회의 동학을 설명하는데 사회경제적 요인에 기초한 사회구조적 범주들, 즉 계급 및 계층, 신분(Stände) 혹은 밀뤼(Milieus)¹²⁾ 개념들이 어떤 이유로 부분적인 유효성을 갖게 되는가를 캐묻기 위함이다(Mannheim, 1964). 만하임이 세대문제와 씨름했던 시기 이전에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젊은이들은 그 어떤 공통점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들은 서로 격리된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인 세계들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나 만하임이 주목한 시기에는 새로운 직업의 등장, 지위상승, 사회이동의 가능성들이 젊은이(물론 남성)들의 계급 및 밀뤼에서 형성되는 지향성들을 부분적으로 해체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기반의 규정성이 부분적으로 무력화되는 상황이 도래하였다. 일단의 젊은이들은 출신배경에 관계없이 비슷한 시대의식(Zeitbewusstsein)의 기초에서 유사한 문제의식과 가치관, 그리고 행동적 특성을 갖게 되었으며, 때에 따라서 이에 근거한 정치적인 집합행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발견한 만하임은 그 이유를 찾고자 세대문제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을 수행하였다.

만하임의 세대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이전에는 세대에 대한 상호 대립적인 입장들, 즉 실증주의적-생물학적인 입장과 역사적-생철학적 입장들이 존재하였다(Jaeger, 1977; Mannheim, 1964). 전자는 세대현상의 규칙성, 균

11) 형식사회학적 접근이란 “상이한 사회적 부분영역에서 추상화된”, 다시 말해서 내용을 사상하고 “사회적 ‘결속’의 형태들을 분석하고 분류”하는 접근방법을 의미한다(Gülich & Kramme, 1992: 164). 만하임은 “세대현상에 대한 형식사회학적 분석”의 기여는 이것을 통해서 “설명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능한 한에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Mannheim 1964: 565).

12) 밀뤼는 “자연적, 사회적(사회-경제적, 정치-행정적, 사회-문화적), 정신적인 환경요인들의 총체”를 뜻한다(Hradil, 1992: 21). 이것은 구체적 인간집단에게 작용하며 그들의 사고와 행위를 각인한다.

질성, 일반화의 발견에 관심이 있고, 후자는 그 역사적 일회성의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전자의 입장에 있는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은 계통학적 세대 개념의 역사적 법칙을 찾아내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대의 간격(약 30년)은 부모와 자식세대의 평균적 연령차이 및 능동적인 사회적 삶의 시기와 그 후의 은퇴시기와 부합된다. 이에 따라 매 30년마다 새로운 세대의 대표자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실증주의적 세대이론의 소위 계통학적 오류는 오늘날까지 세대개념을 둘러싼 많은 혼동의 원인이 된다(Fogt, 1982). 그 첫 번째 문제는 인간들이 원칙적으로 계속적으로 출생하고 사망하는데, 왜 구세대의 퇴장과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 특정시점에만 일어나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새로운 세대의 출현주기에 대해 경험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사회현상인 사망과 출생을 사회 그 자체에 부당하게 투사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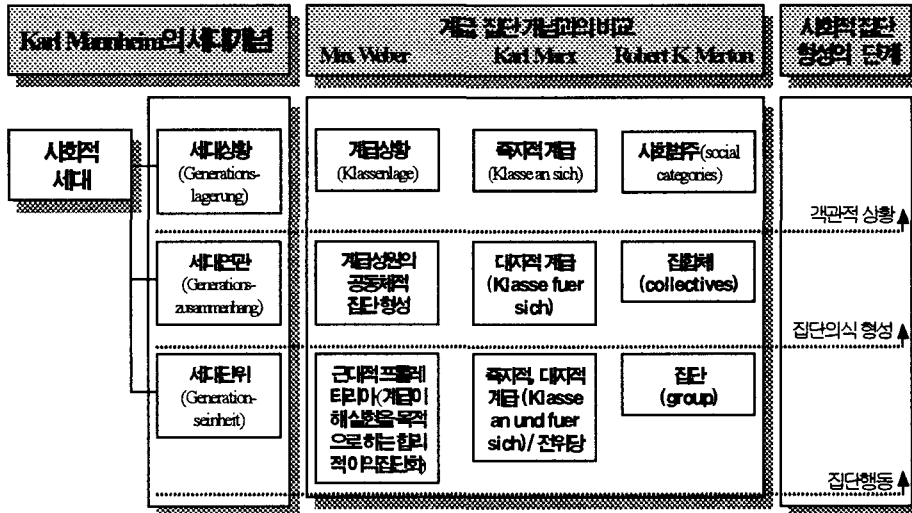
역사발전의 법칙성을 찾으려는 실증적 입장과 구분되는 역사적-생철학적 입장은 왜 근대적 인간은 단지 연령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적 의미를 공유한 하나의 사회적 집단을 형성하는가에 주목한다. 빌헬름 딜타이(Wilhelm Dilthey)는 세대형성의 중요 조건으로서 (1) 개인들이 동시적으로 공통적 경험을 가져야 한다는 점, (2) 이 경험은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즉 청소년기)에 축적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3) 이 공통적 경험이 역사적으로 의미심장한 사건들에 의해 ‘각인’되어야 함을 지적한다.¹³⁾ 딜타이와 함께 세대이론의 체계화에 기여한 빌헬름 핀더(Wilhelm Pinder)는 세대현상을 “동시대인의 비동시성(Ungleichzeitigkeit des Gleichzeitigen)”으로 설명한다. 이는 내적인 경험시기(Erlebniszeit)가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유사연령층이 동시대의 다른 연령층들의 그것과 상이함을 의미한다. 딜타이와 핀더의 이론은 사회학적 세대개념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자재(資材)”들, 즉 “연령”, “역사적 맥락”, “세대소속” 등을 제공한다고 평가된다(Fogt,

13) “세대는 그리하여 개인들의 동시적 관계를 지칭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어깨를 맞대고 성장하는, 즉 공통의 소년기를 보내고, 공통의 청소년기를 보낸 (...) 사람들을 우리는 같은 세대라고 명명한다. (...)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동일한 중요한 영향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의 세대를 이룬다. 이런 의미에서 이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발생한 대사건과 변화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동질적인 전체로 연결될 수 있다.” (Dilthey, 1875: 37; Herrmann, 1987: 368에서 재인용).

1982: 2; Jaeger, 1977: 434). 그러나 이들의 이론은 세대가 어떻게 역사적 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하나의 집단적 성격을 지니게 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세대현상이 생물학적인 요인, 예컨대 동일한/유사한 출생연도(=출생코호트), 연령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상대적으로 무시했다는 문제를 갖는다.

만하임의 세대이론은 이상의 일면적인 두 이론들을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하려는 시도이다. 그는 세대를 '청(소)년기에(17-25세) 어떤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영향을 받아 특정한 의식·문화·지식을 갖게 되는 동일한 혹은 유사한 출생코호트(들)'로 정의한다. 그의 개념은 실증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생물학적 조건, 즉 출생코호트, 연령과 인구학적 신진대사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들에게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의식을 부여하는 과정에 주목한다(Mannheim, 1964: 533, 553). 이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그는 세대를 세대상황, 세대맥락, 세대단위로 구분한다(<표 3-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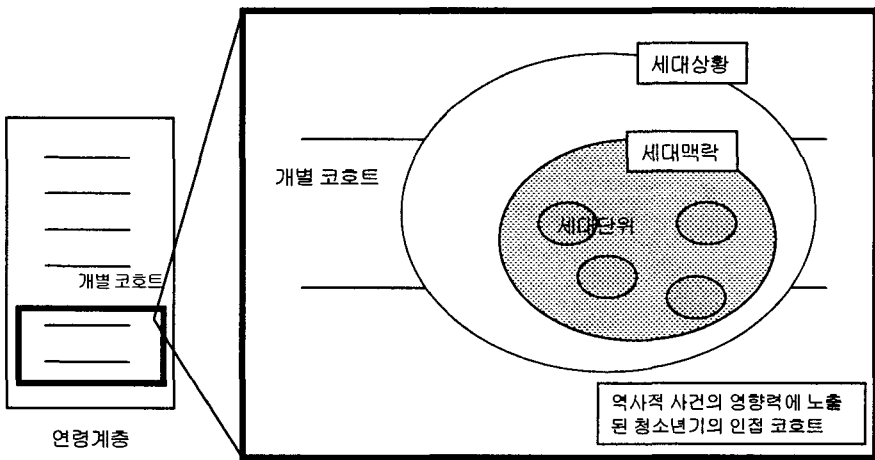
<표 3-1 : 만하임의 세대개념과 여타 사회학적 범주와의 비교>



마르크스, 베버의 계급개념은 Kreckel 1992, 60 참조

만하임의 개념들은 마르크스와 베버의 계급개념, 그리고 머튼(Rober K. Merton)의 사회적 집단·집합체·범주개념과 비교해서 이해할 수 있다(<표 3-1> 참조). 세대상황은 마르크스의 즉자적 계급(Klasse an sich)과 베버의 계급상황(Klassenlage), 그리고 머튼의 사회적 범주(social categories)에 비유할 수 있다. 계급상황이 “각 사회의 경제-권력의 틀에서 특정한 개인들이 유사한 운명을 갖게 되는 상황”(Mannheim, 1964: 525)을 의미하듯이, 세대상황은 “사회적 사건의 흐름에서”(ibid.: 527) 인접한 코호트에 속함으로써 유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세대상황에 있는 개인들은 머튼의 사회적 범주(social categories)개념과 같이 유사한 출생연도와 역사적 상황을 갖기는 하지만, 서로 사회적 상호작용은 하지 않으며 공통적인 규범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Merton, 1968: 352). 요컨대 세대상황은 단순히 코호트의 유사성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상황에 따라 구성되는 객관적인 삶의 기회를 “숙명적(schicksalmässig)”(Mannheim)으로 공유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숙명적이란 의미는 계급상황과도 같이 세대상황이 개인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외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특정 집단에 대한 귀속의식을 가지지 못한 단계로 유사한 출생코호트들이 사회-역사적인 삶의 공간에 단지 노출된 상황을 의미한다.

<표 3-2 : 세대상황, 세대맥락, 세대단위>



이 단계에서 개인들은 단지 “집합적인 행위잠재성”을 가지게 된다(Hermann 1987: 369). 만하임은 공간적인 차이에 따라, 보다 정확히는 개별 국가 및 지역, 예컨대 도시-농촌의 차이에 따라 상기한 사회-역사적인 삶의 공간에 소속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지적한다. 이는 곧 특정 시기의 모든 출생코호트가 자동적으로 세대상황에 노출, 혹은 포함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표 3-2>참조.)

세대상황에서는 유사한 연령과 역사적 사건에 대한 노출이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 반해, 세대맥락에는 “역사적 생활공동체(Lebensgemeinschaft)”(Mannheim: 542)의 의미가 부가된다. 동일한 세대상황에 위치하고 있는 개인들이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거나, 그 파장에 수동적으로 접촉해서 하나의 세대에 대한 소속의식을 공유하게 되면 세대맥락이 된다(<표 3-2>참조). 세대맥락은 세대가 생성될 잠재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세대상황과는 구별되는 ‘실제세대’가 등장할 수 있는 ‘맥락’이 성숙되었다는 의미를 함유한다.

세대상황과 세대맥락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세대의식의 유무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자는 양 단계를 “즉자적 세대”와 “대자적 세대”로 표현하기도 하는데(Fogt, 1982), 이것은 양자의 차이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 Merton(1968)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유무에 따라 집합체와 집단을 구분하는데 이 방식을 세대맥락과 세대단위의 구분에도 적용할 수 있다(<표 3-2>참조). 세대맥락에서 나타나는 세대단위는 원칙적으로 관찰 가능한, 즉 “명시적인 집합행동”을 하는 사회집단으로, 그 성원들 간에 사회적 “상호작용의 형태들”이 형성되고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다(Fogt, 1982: 20). 즉 세대맥락은 “구체적인 집단(konkrete Gruppe)”과는 구분된다(Mannheim, 1964: 547). 또한 세대맥락 단계는 머튼이 집합체(collectives)를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게 되어 연대감을 갖는, 그리고 특정한 역할기대를 만족시켜야만 하는 도덕적 의무감을 갖는 개인들을 의미한다(Merton, 1968: 352). 하지만 성원끼리 서로 알고 있음이 구체적인 집단형성의 전제인데, 세대맥락의 성원들에게 이런 지식은 결여되어 있다(Mannheim, 1964: 546). 그리고 세대맥락은 성원간의 의도와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목적단체(Zweckverbände)”도 아니다. 이에 반해 세대단위는 사

회적 친근함을 통해 연결된 공동체적 집단일 수도 있고, 의도적인 목적을 지닌 단체일 수 있다. 동일한 세대연관에서 서로 대립적인 세대단위들이 출현하는 이유는 사회구조적인 특성에 따른 것이다(Mannheim, 1964: 544; Fogt, 1982: 11). 다시 말해서 세대맥락을 가능하게 하는 특정한 세대의식은 그 성원들의 사회구조적 위치에 따라 상이한, 많은 경우 서로 적대적인 방식으로 가공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사회적·정치적·문화적 지향을 가진 세대단위의 등장으로 표현된다.

(2) 사회영역에 따른 세대개념의 구분. 정치적·문화적·경제적 세대

사회적 세대는 그것이 생성되는 사회영역 연관에 따라 대략 세 가지로 구분된다(Kohli, 1996: 183-186; Kohli & Szydlik 2000: 8-10).¹⁴⁾ 이를 요약하면 <표 3-3>과 같다.

<표 3-3 : 사회영역에 따른 세대개념의 구분>

	특징	세대연관/두암의대산	예
정치적세대	정치에대한특정한지향 가 치관 스타일	정치적장애의 권력해체요니	68세대 4.19세대 386세대
문화적세대	삶에대한특정한지향 가치관 스타일 문화적대상이나기술 적대상에대한자세 접근방 식	일상문화적/문화적삶의 장애의권력해체요니	매스미디어 학문적토론에서 양산되는세대개념 기술적세대(Ryder, Weymann/ Sackmann)
경제적세대	경제적기회와리스크의 공평성 구조적인요인 노동시장에서 국가 기층에의태민들여는것	경제적재능/력 (정치적 분배)등 경제적인정 자원배분	후쿠야마세대(개미)

14) Wohlrab-Sahr(2002: 209)는 왜 사회적 세대가 이 세 가지 차원으로만 구별될 수 있는가를 의문시한다.

정치적 세대는 다른 정치적 세대와 구분되는 특정한 정치적 지향, 가치관 그리고 태도를 가짐으로써 세대정체성을 갖는다. 이 때문에 이들은 다른 세대와 대립적이며 갈등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 정치적 세대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68세대인데, 이들은 1968년의 정치적 사건인 학생운동을 기화로 일정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정치적 저항의 새로운 표현형식을 보여주었다(Brand & Büsser & Rucht, 1986). 정치적 세대간의 갈등 및 투쟁의 대상은 정치적인 장에서의 주도권을 둘러싼 정치적인 권력과 헤게모니이다.

한 특정한 문화적 세대는 자신의 고유한 삶의 지향, 가치관 그리고 스타일 등으로 다른 세대와 스스로를 구분한다(Kohli & Szydlik 2000: 8)(〈표 3-3〉 참조). 문화적 세대들은 일상문화적 실천의 장(field)에서 문화적 권력과 헤게모니를 둘러싸고 서로 갈등하고 투쟁한다. 소위 X세대는 이 세대 범주의 가장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다. X세대는 미국의 60년대 출생자들로 물질주의적 지배이데올로기와 지배체계에 거리를 두며, 물질적 재화의 무소유를 도덕적이며 지적인 우월성의 표식으로 간주하는 삶의 지향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Bartels, 2001). 이들은 자신의 세대정체성을 협의의 정치적인 집합행동보다는, 팝문화(pop-culture)적인 표현양식을 선택한다. 코플랜드(Douglas Coupland)의 소설 “Generation X”, 링크레이터(Richard Linklater)의 영화 “slacker” 그리고 록밴드인 “Nirvana”를 선봉으로 하는 팝음악 장르인 grunge와 grunge-look 등으로 이들은 80년대 여피(Yuppi)로 표현되던 중심적인 사회적 가치들(치부와 세속적 성공)에 대한 냉소와 비하를 표현한다.

각각의 문화적 세대는 또한 특정한 문화적, 기술적 재화에 대한 태도에서 구분될 수 있다. 기술세대(Technikgeneration)개념은 “기술적 능력(Technikkompetenz)”, “기술의 경험방식(Technikerfahrung)”, “기술평가(Technikeinschätzung)”에서의 동시대인의 비동시성을 사회변동과의 연관에서 살피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Sackmann & Weymann, 1994). 이 사항들에서 세대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 재화)에 대해 각 세대가 서로 다른 경험, 능력,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라이더가 이미 지적했던 바, 단순한 세대교체도 사회적 혁신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¹⁵⁾ 예를 들어 유망하고 미래지향적인 산업부문(예컨대 IT-산업)과 소멸·축소되는, 과거 지향적인 부문(예컨대 광산업)의 종사자들의 연령을 비교하면, 전자에 비해서 후자에서 노령화 추세가 강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후자에서는 세대교체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데 반해서, 전자에서는 계속적인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대교체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회적 혁신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바뀐 환경에서의 생존이 수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즉 세대교체가 활발하지 못할 경우에는 혁신이 정체되고 바뀐 조건에 대한 적응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스미디어나 학계에서 생산되는 많은 세대개념들은 이 문화적 세대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¹⁶⁾ 물론 Kohli & Szydlik(2000: 8f.)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일군의 사람들이 유사한 사회문화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들을 쉽고 편하게 사회과학적 의미의 세대로 명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코호트나 연령집단들을 세대로 명명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이 집합적인 행위자로 공적인 영역에 등장하고, 다른 세대들의 그것과 구분되는 고유의 세대의식을 발전시키고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유행과도 같은 순간적인 사회문화적 특성들 역시 문화적 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특성들이 특정 생애단계, 예컨대 청소년기의 특성으로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 생애 걸쳐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특성들의 소지·체화(incorporation)여부가 다른 코호트들과의 구분기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세대가 될 수 있다.

경제적 세대의 생성에서 결정적인 요건은 “경제적 기회와 위협의 공유”이다(Kohli & zydlik, 2000: 9)(<표 3-3> 참조). 경제적 세대귀속 여부는 보통 구조적인 조건들, 구체적으로 경제상황, 노동시장의 구조나 국가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이 조건들은 각 코호트들의 “집합적 숙명”(Leisering, 2000: 59)으로써 작용한다. 경제적 세대는 주로 경제적 재화의 획득기회를

15) “새로운 코호트들은 사회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들 스스로가 변화를 일으킨 다기보다는, 이를 용인할 뿐이다.”(Ryder 1965: 844).

16) 이유는 아마 문화개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다의성에 의한다고 할 수 있다.

둘러싸고 서로 갈등하고 투쟁한다. Elder(1974)가 보여준 바와 같이 대공황과 같은 극단적인 경제적 사건들은 “대공황의 아이들(children of the great depression)”이라는 경제적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국가의 특성, 예컨대 복지국가 역시 경제세대를 형성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Thomson, 1989; Leisering, 1992). 특정한 코호트들은 전 생애에 걸친 연금혜택과 연금납부의 대차대조에서 승리자와 패배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Thomson(1989)은 뉴질랜드 복지국가의 발전을 다른 모든 세대들에 대한 한 세대의 성공적인 음모의 결과로 해석한다. 그에 따르면 음모를 성공적으로 실현한 이 세대는 그들이 젊었을 당시에 복지국가의 도입과 발전을 이룩하여, 후에 이 모든 혜택들을 누리게 되었다.

특히 이 경제적 세대의 문제영역에서 흥미로운 주제는 노동시장에서의 경제적 세대간의 경쟁이다. 노동시장에서 상이한 세대들, 예를 들어 노인세대와 청(소)년세대는 서로 직접 경쟁하지는 않는다. 상이한 연령집단간의 경쟁은 오히려 이를 조장하는 구조적 조건에 의해 간접적으로 생겨난다. 이를 몇 가지 예를 통해 살펴보자(Sackmann, 1998). 프랑코 사후 (1975년) 스페인은 마치 오늘날 동유럽 국가가 경험하고 있는 변동과 비유될 수 있을 정도의 극심한 변화를 겪었다. 이 결과 90년대 중반까지 스페인은 매우 높은 실업률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모든 세대에 걸쳐 실업률이 동일한 정도로 높았던 것은 아니다. 프랑코 사후 직후인 1976년, 사회의 동요를 진정시키기 위한 사회안정화 시책으로 기존에 일자리가 있었던 사람들의 직장은 보호하는 고용관계 안정화법이 실시된다. 그러나 국제적 경쟁력을 상실한 국내산업들이 근근히 생존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시책은 결국, 기성세대의 고용안정화를 위해 청년세대가 희생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80년대 독일은 극심한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 때문에 공공지출, 특히 교육부문의 지출이 동결·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교사직을 둘러싼 노동시장의 경쟁이 매우 첨예화되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의 교사는 해고보호(Kündigungsschutz)에 따라 자신의 자리를 보호받기 때문에, 당시 교육대학의 졸업자 및 그 이후 세대는 이 긴축재정의 피해자가 되었다. 90년대 말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관찰된다. 소위 IMF 파동으로 인한

극심한 경제·재정위기 때문에 공공지출, 특히 교육부문 지출 동결되거나 축소되었다. 따라서 여기서도 교사의 노동시장의 상황은 매우 악화되었다. 그러나 위의 사례들과 달리 한국정부는 당시 교육·사범대학의 졸업자들의 취업을 위해 교사정년을 축소함으로써, 젊은 세대들의 고용안정화를 추구하였다. 다시 말해 90년대 한국에서는 노년세대의 희생으로 청년세대가 상대적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사회적 세대들의 내적 분화에 대한 이 절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적해야 할 사항은 앞에서 정치적 세대로 예를 든 68세대는 역시 문화적, 경제적 세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는 세 사회영역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Rosenthal 2000), 이 세대형상의 독특성과 근본주의적 성격, 그리고 광범위성 때문이다(Fietze 1997).¹⁷⁾ 68세대는 정치적으로 활동적이었을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명백한 성공을 거둔다. 특히 관습의 “비공식화(Informalisierung)”(Wouters, 1986), 반권위주의적인 “삶의 영위방식(Lebensführung)”의 관철과 가족·성별관계의 재조직화(Bude & Kohli, 1989; Fietze, 1997)는 68세대의 대표적인 문화적인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68운동은 또한 Bourdieu(1995)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이 운동의 추동세력이던 68세대가 기성세대와 보다 나은 사회적 재화의 획득기회를 둘러싼 갈등과 투쟁의 산물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세대는 경제적 세대로도 간주될 수 있다.

IV. 분석적 세대개념들의 상호관계

지금까지 위에서 세대개념에 대한 세 유형의 구분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세대개념은 그것이 관련된 사회적 수준과 대상영역에서, 가족·교육학적·사회적 세대로 구분할 수 있다(본문 II장 참조; 이에 대한 요약은 표 4-1 참조). 이 세대개념들은 서로 환원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개념으로 통합되거나 요약될 수 없다. 이러한 개념적 문제에 대한 “우아한” 해결책은 아직 확보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Liebau, 1997), 연구주제와 목적에 따라 세 개념들을 그냥 나열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다.

17) 이에 대해 Kohli & Szydlik(2000 : 13)은 68세대와 같이 “성공적인 사회적 세대는 정치, 문화, 경제적인 측면 모두에서 이전과 이후의 코호트들과 스스로를 확연히 구별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평가한다.

<표 4-1 : 가족·교육·사회적 세대의 구분기준과 종류, 그리고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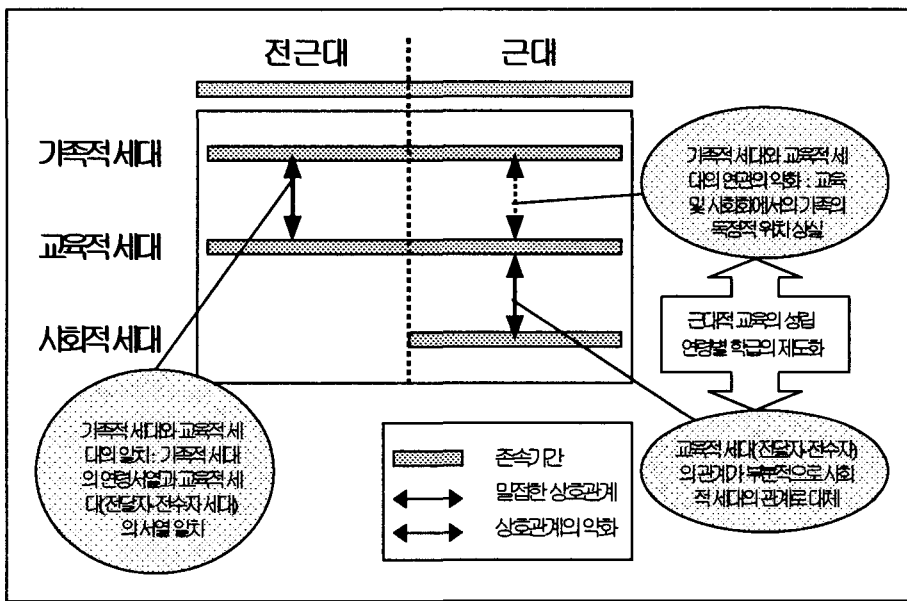
특성 세대	구분기준	종류	예
가족적	생물학적 계통과 연령서열	생물학적 계통 및 연령서열에 따른 가족내 위치에 따라 세대구성	조부모, 부모, 자식 등
교육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지식과 문화의 전승을 참여하는 가족적 및 사회적 세대	지식과 문화의 전승에서의 역할(전달자 혹은 전수자)에 따라 세대구성	전달자와 전수자 세대*
사회적	연령, 시대/중요한 사건, 이로 인해 생겨난 집단의식 혹은 해석틀 (Deutungsmuster)	사회적 세대 : 사회영역 기준**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세대
		역사적 세대 : 시대 및 특정한 역사적 사건 기준**	전후세대, 4.19 세대, 386 세대, 신세대 등

* 교육적 세대에서는 다른 세대유형과 달리 단지 두 가지 유형의 세대만이 가능하다.
 ** 분석적으로 사회적, 역사적 세대의 구분이 가능하다. 사회적 세대는 사회영역을 기준으로, 역사적 세대는 시대 혹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세대를 의미한다. 그러나 양자는 사실상 실제적으로 구분불가능하다. 역사적 세대는 다양한 사회적 세대로 등장할 수 있다. 예컨대 전후세대는 정치적, 문화적 혹은 경제적 세대로서 간주될 수 있다.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가족세대는 친족계보에서의 서열과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본문 II-2) 참조). 사회적 세대는 이에 반해서 거시적인 수준에서 발견되는 것인데, 인접 코호트들이 역사적 흐름과 객관적인 사회적인 조건 속에서 집단으로서의 연대의식을 갖게 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이 두 세대는 비록 같은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각 세대를 결정하는 요인은 전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과 내용이 확연히 구별된다. 물론 이 구별은 분석적인 차원에 한정된다. 실제로 사회적 세대와 가족세대는 연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 예컨대 “어떤 특정 사회적 세대의 성원으로서 자신의 정체성 형성”에 가족세대에서의 위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Kohli & Szydlik, 2000: 15; Rosenthal, 2000). 역으로 어떤 세대운동에 의해 확산된 특정한 시대정신은 가족세대간 관계양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의 두 세대개념에 비해, 교육학적 세대는 관찰수준에서 특정한 위치를 부여하기 힘들다. 다시 말해서, 이 세대현상은 미시·거시적인 차원에서 모두 관찰될 수 있다. 이는 사회변동과정에서 교육학적 세대의 결정요인이 변화했다는 것과 연관이 있다<표 4-2 참조>.

<표 4-2 : 역사적 발전에 따른 세대 3 유형의 상호관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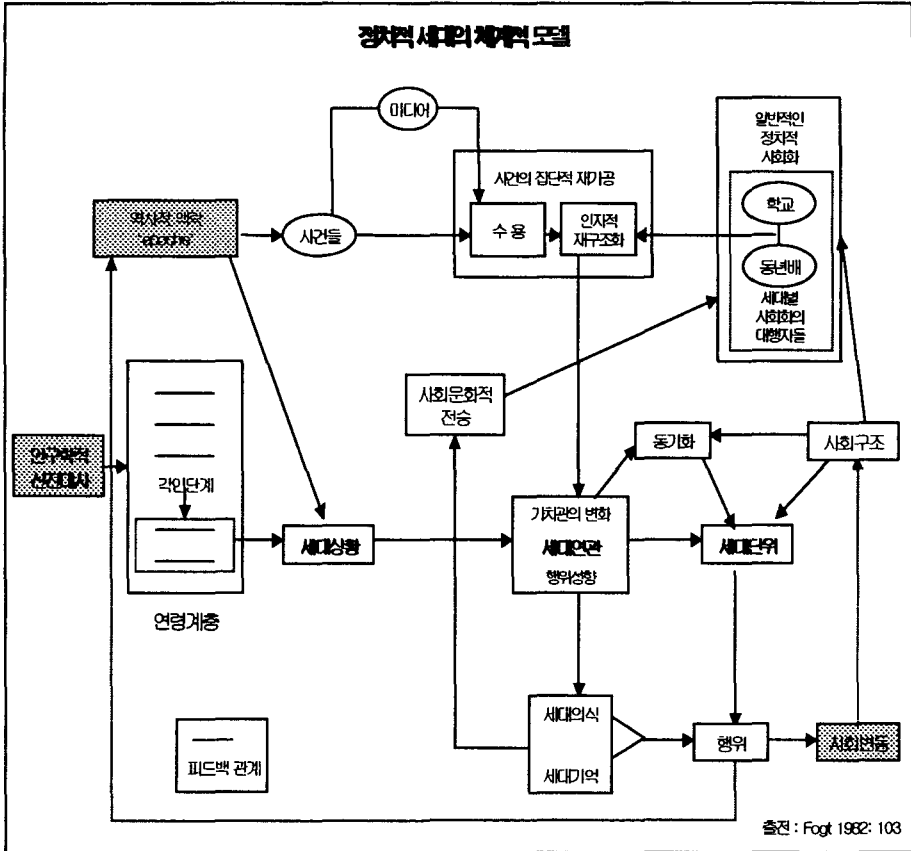
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근대화 과정에서 전통사회에 존재하였던 연령과 교육학적 세대간의 위계적 일치성은 해체된다. 근대화 이전 사회에서 가족세대는 곧 교육학적 세대, 즉 부모와 자식은 각각 사회적 생존에 필요한 지식과 문화의 전달자와 전수자로서의 교육학적 세대로서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곧 양 세대간의 밀접한 상호관계를 의미한다(<표 4-2> 참조). 하지만 근대화 이후의 사회에서는 <표 4-2>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 양 세대간의 관계고리가 많이 느슨해졌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근대화의 부분현상, 즉 사회분화로 인해 교육제도가 체계화되면서 가족이 이전에 담당하던 많은 교육기능을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근대화 과정에서 이 가족적 세대와 교육학적 세대간의 관계가 느슨해진 반면, 교육학적 세대는 사회적 세대와 보다 밀접히 연결된다. 이 연결은 사회적 세대가 근대화의 산물이라는 점(본문 III-1) 참조)과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 세대의 형성을 가능하게 했던 근대화 과정의 요인들이 교육학적 세대구성의 조건 자체를 변형시켰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사회분화 외에 다른 근대화의 부분과정(본문 III-1) 참조)들은 생활세계의 변화와 공간적 분리(도시화)와 역사적 시간의 흐름을 가속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간 간격을 보다 크게 만든다(급속한 사회변동). 전통에 근거한 연장자의 연소자에 대한 사회문화적 통제는 어려워지고 이런 조건들의 변화는 사회적 지식과 문화의 생성과 전달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지식과 문화의 생성과 전달은 보다 빨라지고 현재·미래지향적이 된다. 새로 등장하는 각 세대들은 이전(동시에 이후) 세대들과는 다른 고유의 정체성, 곧 사회적 세대의식을 만들고 가질 수 있는 보다 큰 가능성을 갖는다. 이렇게 사회적 세대의 형성을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 변화는 교육학적 세대관계 자체를 변화시킨다. 이제 전달자와 전수자의 관계는 연령서열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전통사회에서 존재했던 가족세대의 서열, 연령서열 그리고 교육학적 세대의 서열의 일치성은 근대사회에서는 약화되고, 이 새로운 조건에서 교육학적 세대는 연령과 가족의 통제에서 벗어나 사회적 세대(간의 관계)와 보다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된다.

사회적 세대의 생성 및 발전단계에 따른 세대개념의 구분은 만하임이 사회적 세대형성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제안했던 방식이다(본문 III-2)-(1) 참조). 사회적 세대는 처음부터 어떤 세대의식으로 무장하여 이에 근거한 집합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연구자는 세대의 형성을 내·외적 조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하나의 발전과정에서 파악해야 한다. 이를 <표 4-3>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¹⁸⁾

18) 이 세대형성의 모델은 Fogt(1982: 103)의 “정치적 세대의 체계모델”(ein Systemmodell politischer Generationen)이다. 여기서는 이 모델의 설명을 지면관계상 간략하게 정리한다.

<표 4-3 : 사회적 세대의 체계적 모델>



외적 조건으로는 세 가지 기본적 기제를 들 수 있다: 인구학적 신진대사, 역사적 맥락, 사회변동(<표 4-3>에서 빗금친 사각형으로 표시). 그 외에 역사적 사건, 매스미디어, 학교와 동년배와 같은 사회화의 대행자(<표 4-3>에서 타원형으로 표시)들도 외적인 조건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표 4-3>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 외적인 조건들과 세대는 피드백 관계에 있다. 만하임의 세대상황 개념은 먼저 일련의 코호트들이 집단으로서의 연대감과 집합행동의 행위자로 발전하기 전의 잠재적 상황을 지칭한다. 세대상황이라는 “원자재”(Rohmaterial)는 특별한 사건들에 대한 집단적 재가

공과정을 거쳐 세대맥락으로 발전한다(Fogt, 1982: 104). 이 집단적 재가공의 구체적인 결과물은 세대의식이며, 이것은 세대기억으로 저장된다. 재가공 과정에서 물론 일반적 사회화의 대행자들, 즉 학교와 동년배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세대맥락은 사회구조적인 특성에 따라 세대단위로 내적 분화한다. 물론 양자의 차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존재여부, 그리고 세대적 이해에 근거한 집단행동의 존재여부이다(본문 III-2)-(1) 참조).

이 글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시도한 개념구분은 대상영역에 따른 사회적 세대의 구분이다(본문 III-2)-(2) 참조). 이 시도는 사회적 세대라는 일반적인 모듬개념을 사회영역과의 연관하에서 구체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세 가지 사회영역, 즉 정치·문화·경제에 따라 서로 구분되는 세대개념들을 제시하였다(<표 3-3> 참조). 정치적 세대의 정체성은 정치적 지향, 가치관 그리고 태도에 기초하여 구성된다. 경제적 세대의 형성은 구조적 조건(노동시장, 국가형태, 경제상황)에 의한 경제적 기회와 위협의 공통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문화적 세대는 넓은 의미에서 삶에 대한 지향·가치관·태도 및 문화적·기술적 대상에 대한 관점과 수용방식 등에서 서로 구분된다. 이 세 가지 사회적 세대들은 갈등의 양태와 투쟁대상에서도 차이를 나타낸다(<표 3-3> 참조). 문화적 세대들은 일상문화적 실천의 장에서, 정치적 세대들은 정치적 장에서 권력과 헤게모니를, 그리고 경제적 세대는 경제적 재화의 획득기회를 둘러싸고 서로 갈등하고 투쟁한다. 사회영역에 따른 사회적 세대의 구분에서 잊어서는 안되는 점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본문 III-2)-(2) 참조), 경험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세대의 존재양상은 이들 분석적 범주들에 걸쳐 있다는 사실이다.

학계와 매스미디어에서 볼 수 있는 세대개념의 남용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다만 “즉흥적으로 발명된, 결코 성찰되지 않은 세대꼬리표(Generationenettiketten)”들은 이 개념을 공허한 것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Kohli & Szydlik, 2000: 17). 또한 “세대연구에서 흔히 빠지기 쉬운 유혹”, 즉 “세대요인의 중요성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과장하여 이해하”려는 유혹 역시, 세대현상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어렵게 하는 커다란 장애물이다(박재홍, 2001: 74). 여기에 세대개념 자체에 내재된 다의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생기는 혼란을 빌미로 이 개념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마

치 ‘더러워진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는 것’¹⁹⁾과 같다. 이런 위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세대개념이 갖는 “역사적 동학”(Mannheim)에 대한 설명력을 온전히 거두기 위해서는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이 글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 개념을 그것이 연관을 맺는 다양한 요인들, 특히 관찰수준과 세대형성의 역사적 과정 그리고 사회영역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세대개념의 체계적 정리를 시도하였다.

19) 독일의 속담.

참고문헌

- 김경일 (2002), 『단일국가 신화와 세대 문제』, 국민일보 2002-01-03. p.7.
- 박재홍 (2001), 『세대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쟁점』. 《한국인구학》 24권 2호. pp. 47-78.
- Bartels, Inke (2001), "Generation X. Zum inflationaren Gebrauch des Begriffes 'Generation' im aktuellen Mediendiskurs," *Vokus. Volkskundlich- kultur wissenschaftliche Schriften*. Vol. 13. No.2, pp. 44-72.
- Becker, H.A. (1998), *Risiko Generation: andere Zeiten, andere Chancen*, Muenchen: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 Bengtson, Vern L. (1993), "Is the "Contract Across Generations" Changing? Effects of Population Aging on Obligations and Expectations Across Age Groups," Bengtson, Vern L. & Achenbaum, W. Andrew (eds.), *The Changing Contract across Generations*, New York: Aldine De Gruyter, pp. 3-23.
- Bourdieu, Pierre (1995), 《구별짓기 :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최종철 역. 서울: 새물결.
- Bude, Heinz (1997), "Die 'Wir-Schicht' der Generation," in *Berliner Journal für Soziologie*, Vol. 7, pp. 197-204.
- Bude, Heinz (2000), "Die biographische Relevanz der Generation," in Kohli & Szydlik (2000) (eds.), pp. 19-35.
- Bude, Heinz & Kohli, Martin (eds.) (1989), *Radikalisierte Aufklärung. Studentenbewegung und Soziologie in Berlin 1965 bis 1970*, Weinheim: Juventa.

Burkart, Günther & Wolf, Jürgen (2002), "Sozialgeschichte der Soziologie als Generationengeschichte. Einige Anmerkungen zur Generationsdynamik in der neueren deutschen Soziologie," Burkart, Günther & Wolf, Jürgen (eds.) *Lebenszeiten. Erkundungen zur Soziologie der Generationen*, Leske+Budrich, Opladen, pp. 421-435.

Corsaro, W.A. (1997), *The Sociology of Childhood*, Thousand Oaks, Calif.: Pine Forge Press.

Corsten, Michael (1999), "The Time of Generations," in *Time & Society* Vol. 8, No. 2, pp. 24-272.

Dilthey, W. (1875), "Über das Studium der Wissenschaften vom Menschen, der Gesellschaft und dem Staat," in *동일저자, Gesammelte Schriften*, Bd. V, Stuttgart/Göttingen.

Durkheim, Emile 1977[1973]: *Über die Teilung der sozialen Arbeit*, Frankfurt/Main: Suhrkamp

Ecarius, Jutta(ed.) (1998), *Was will die jüngere mit der älteren Generation? Generationenbeziehungen in der Erziehungswissenschaft*, Opladen: Leske & Budrich.

Ecarius, Jutta (1998), "Generationsbeziehungen und Generationenverhältnisse. Analyse zur Entwicklung des Generationenbegriffs," in Ecarius (ed.), pp. 41-66.

Fogt, Helmut (1982), *Politische Generationen. Empirische Bedeutung und theoretische Modelle*,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Güllich, C. & Kramme, R. (1992), "formale Soziologie", in Reinhold, G. & Lamnek, S. & Recker, H.(eds.), *Soziologie Lexikon*, R.Oldenbourg Verlag; München, Wien, pp.162-166.

- Höpflinger, Francois, (1999), Generationenfrage: Konzepte, theoretische Anätze und Beobachtungen zu Generationenbeziehungen in späteren Lebensphasen, Lausanne: Realites Sociales.
- Hradil, S. (1992), Zwischen Bewußtsein und Sein. Die Vermittlung "objektiver" Lebensbeidungen und "subjektiver" Lebensweisen. Westdeutscher Verlag; Opladen.
- Hurrelmann, Klaus, (1999), Lebensphase Jugend. Eine Einführung in die sozialwissenschaftliche Jugendforschung (6. Aufl.). Juventa. Weinheim und München.
- Jaeger, Hans (1977), "Generationen in der Geschichte," Geschichte und Gesellschaft, Vol. 3, pp. 429-452.
- Kamper, D. (1989), "Antropologie, pädagogische," Dieter Lenzen (ed.), Pädagogische Grundbegriffe, Vol. 1, Rowohlt: Reinbeck, pp. 82-88.
- Kohli, Martin (1996), The Problem of generations: Familiy, economy, politics. Collegium Budapest: Public Lecture Series No. 14. Budapest.
- Kohli, Martin & Szydlík Marc (eds.), (2000), Generationen in Familie und Gesellschaft, Opladen: Leske & Budrich.
- Kohli, M. & Szydlík, M. (2000), "Einleitung," Kohli & Szydlík (eds.), pp. 7-17.
- Leggewie, Claus (1995), Die 89er. Portrait einer Generation, Hamburg: Hofmann&Campe.
- Liebau, Eckart (1997), "Generation", in Wulf, Christoph (ed.) Vom Menschen. Handbuch Historische Anthropologie, Weinheim et. al: Beltz.: pp. 295-306.
- Lübbe, Hermann (1983), Zeit-Verhältnisse. Zur Kulturphilosophie des

Fortschritts, Graz, Wien, Köln: Styria.

Lüscher, Kurt (1993), "Generationenbeziehungen - Neue Zugänge zu einem alten Thema", in Lüscher, K. & Schultheis, F.(eds.), Generationenbeziehungen in 'post-modernen' Gesellschaften, Konstanz: Universitätsverlag, pp. 17-47.

Mannheim, Karl (1964[1928]), "Das Problem der Generationen," in: Karl Mannheim, Wissenssoziologie, Soziologische Texte 28, Neuwied: Luchterhand, pp. 509-562.

Matthes, Joachim (1985), "Karl Mannheims 'Das Problem der Generationen' neu gelesen," Zeitschrift für Soziologie, 14, pp. 363-372.

Mayer, K. U. (2000), "Lebensverlauf," in Schafers, B. & Zapf, W.(eds.) Handwörterbuch zur Gesellschaft Deutschlands,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446-460.

Mead, M. (1970) Culture and commitment: A study of the generation gap. Garden City, N.Y. : Natural Hist. Pr., Doubleday.

Meyer, John & Kamens, David H. (eds.) (1992), School knowledge for the masses. World models and national primary curricular categories in the twentieth century, Falmer Press. Washington, DC.

Pilcher, Jane (1994), "Mannheim's sociology of generations: an undervalued legac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5, pp. 481-495.

Rosenthal, Gabriel (2000), "Historische und familiale Generationsabfolge," Kohli & Szydlik (eds.), pp. 162-178.

Ryder, Norman B. (1965), "The Cohort as a Concept in the Study of Social Change", i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0: 843-861.

Sackmann, R. (1998), Konkurrierende Generationen auf dem Arbeitsmarkt,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 Sackmann, R. & Weymann, A. (1994), Die Technisierung des Alltags. Generationen und technische Innovationen, Frankfurt; Campus.
- Uhle, Reinhard (1996), "Über die Verwendung des Generationen-Konzepts in der These von der 89er-Generation", in Liebau, E. & Wulf, Ch.(eds.), Generation, Weinheim; Deutscher Studien Verlag, pp. 77-89.
- Weymann, Ansgar (1994) Altersgruppensoziologie, in: Kerber, Harald, Arnold Schieder (eds.) Spezielle Soziologien. Reinbeck: Rowohlt: 344-362.
- Weymann, Ansgar (1995) : Modernisierung, Generationenverhältnisse und die Ökonomie der Lebenszeit. Gesellschaftsformen und Generationen im 'Polish Peasant'. In: Soziale Welt, 46: 369-384,
- Weymann, Ansgar (2000) Sozialer Wandel, Generationsverhältnisse und Technikgenerationen, in: Kohli & Szydlik (eds.): 36-58.
- Wouters, Cas (1986) "Formalization and Informalization: Changing Tension Balances in Civilizing Processes", in Theory, Culture and Society 3. 1-18.
- Zapf, Wolfgang (1994), Modernisierung, Wohlfahrtsentwicklung und Transformation. Soziologische Aufsätze 1987- 1994. Sigma: Berlin.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the sociology of generations
- an analytical classification of the generation concept**

Sangchin Chun

Issues regarding "generation" are facing a renaissance during recent years. One of prevailing reasons for this development is the crisis of collective identities due to diverse contemporary socio-political circumstances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society. However, it is often criticized that the sociological examination of this topic is rather in a obscure stage resulting from the inherent confusion and ambiguities mainly caused by the mixed usage of the concept. In this regard, this study explores the possibility of answering these critics and refining the systemic usage for the sociology of generation in the realm of social changes and social innovations. For this purpose, analytical classification of the concept based on various contextual typology are attempted.

Key Words : generation, sociology of generations, Mannheim, social changes, social innovations.